

존재감 드러내는 '美래권력'...G20 시선은 트럼프에

밀레이, '초록은 동색' 행보... "공동 선언문 일부 거부" 어깃장 시진핑, '보호무역' 트럼프 의식하며 "중국 개방" 정책 세일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막후 영향력을 과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제안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글로벌 부유세 과세를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삼고 가시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 끝에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최종 공동 선언문 합의를 끌어냈다.

G20 이사국이 공개한 합의문에는 다자무역 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를 위한 협업체 구성,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노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갈등 해결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강경우파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 이웃'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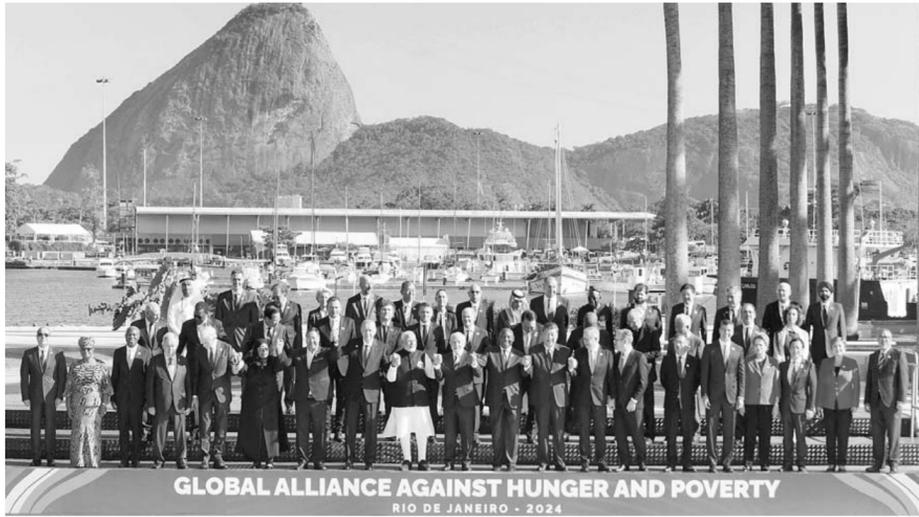
르헨티나는 "합의에는 함께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다"고 어깃장을 놨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별도 성명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거나 굶주림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에서 개입하는 등의 노력에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매체 G1은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기후 위기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상 공동 선언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G1은 전했다.

선언문 초안을 다듬는 정상회의 준비회의(세르파 회의)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기류를 바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후 위기를 '거짓말'



기념촬영하는 G20 정상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라고 일축해 왔는데, 이는 기후 위기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참석

전에는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향후 아르헨티나 외교 정책 주파수를 미국과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르헨티나가 부유세 과세에 관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협의 촉진 노력'

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엘파이스와 G1은 "브라질 외교가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 특사처럼 행동한다는 우려를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트럼프 재집권'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트럼프 당선인을 경멸하고 있다.

지난주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부각한 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빈국들에 대한 '일방적 개방'(unilateral opening) 정책 확대를 전명하는 등 '환심 사기'에 나서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반영해 전략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 "새로운 투자처"를 자처하며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은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모든 당사국이 발전하는 중국의 급변 열차에 계속 탑승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퇴임 앞서 전쟁 일으키나"...우크라 지원 강화에 트럼프 측 반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한 바이든 향해 "3차 세계대전 시작하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산 에이태컴스(ATACMS)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게 됐다"고 말했다.

왈츠 의원은 트럼프 2기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총성과 정치인이다.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권 이양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책사로

꼽히는 그레넬 전 대사는 독일 대사 외에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와 함께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조지아)은 자신의 X 계정에 "퇴임하는 바이든이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반발은 앞서 제기된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다.

트럼프 주니어는 "군산복합체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

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듯하다"며 "수조 달러의 돈을 틀어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고조하는 상황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공기질이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인도 수도 뉴델리의 관광명소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인뉴델리 초미세먼지, WHO 기준 65배 치솟아

PM2.5 980µg/m³ 찍기도...온라인 수업 전환·건설 작업 중지

매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 수도 뉴델리의 공기질이 다시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위스 공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의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907µg/m³로 치솟아 올해 들어 최악을 기록했다. 뉴델리의 한 관측소에서는 PM2.5 수준이 980µg/m³를 기록,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 15µg/m³의 65배에 이르기도 했다.

이는 주변 하리아나주와 펀자브주 등의 농작물 추수 잔여물 및 도심 쓰레기 소각, 자동차·공장 매연, 겨울철 기온 하강, 분지 지형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이에 10~12학년용 제한한 학생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비필수적인 트럭의 시내 진입을 막고 건설 작업도 중단시켰다. /연합뉴스

뒤지산 내년 여름부터 입산료 최대 4만5천원 부과 검토

일본 시즈오카현이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후지산의 입산료로 내년 여름부터 1인당 3천~5천엔(약 2만7천~4만5천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즈오카현은 환경보전 명목으로 등

산객이 자발적으로 내 온 '후지산 보전 협력금'(1인당 1천엔)을 폐지하는 대신 입산료를 걷을 방침이다. 또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야간 입산도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 2월

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즈오카현은 후지산에 접한 야마나시현이 입산료와 야간 통행 규제로 효과를 본 점을 참고해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후지산의 시즈오카현 방면에서는 3

개 등산로가 있으며 올여름 후지산 등산객의 약 40%에 해당하는 8만9천명이 이용했다.

야마나시현은 이미 지난 7월부터 1인당 입산료 2천엔(약 1만8천원)을 부과했고 오후 4시 이후 야간 통행을 규제했다. /연합뉴스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엇보다도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자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